



각 상실 외 기타 장애

출처:



해즈 & 보이스



신시네티 칠드런즈

어린이가 청각 상실 외의 추가 진단을 받았을 때 고려할 사항:

- 청각 장애/난청(d/hh)를 가진 어린이의 40% 이상은 부가적인 건강 문제나 발달 지연을 경험합니다.
- 이러한 추가 진단으로는 정신 건강 문제, 학습 장애, 실명, 뇌성마비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.
- 추가 장애 및/또는 진단은 청각 상실을 유발한 것과 같은 요인(유전, 질병 등)으로 발생하거나 청각 상실과는 전혀 무관할 수 있습니다.
- d/hh와 추가 진단을 받은 사람을 가리켜 데프 플러스(deaf plus) 또는 기타 장애를 가진 청각 장애인이라고 부릅니다.
- 전문가도 청각 상실과 기타 장애를 구분하기가 까다로우며 이로 인해 평가, 중재 및/또는 교육 배치가 더욱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.
- 청각 상실과 기타 건강 또는 발달 관련 진단이 혼재하는 경우, 각 진단(그리고 각 개인)이 고유한 문제와 요구를 수반하므로 둘 중 하나에 대한 중재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.
- 특정 전문가뿐만 아니라 추가 장애를 가진 아동과 함께 근무하는 사람들은 아동이 가진 모든 장애에 대해 잘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이처럼 전문가들은 설정한 목표에 영향을 주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을 인지할 수 있습니다. 예를 들어, 물리 치료사는 효과적인 소통을 위해 어린이가 d/hh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. 마찬가지로, 전문 청능사는 접근성을 확보하고 아동의 특수한 운동 능력에 맞추기 위해 어린이의 운동 발달 지연에 대해 파악하고 있어야 합니다.
- 추가 진단은 d/hh를 가진 어린이의 듣기와 의사소통을 어렵게 할 수 있습니다. 각 가정은 소통을 위한 모든 선택지를 고려하여 자녀에게 적절한 방법을 결정해야 합니다. 때로 표현 언어와 수용 언어에 있어 여러 소통 방식을 사용하는 어린이도 있습니다.